

신이식에서 이식전 투석방법이 이식신에 미치는 영향

경북 의대 내과

김석재*, 김준철, 박선희, 김찬덕, 백미영, 김준홍, 권태환, 김용림, 조동규

지속적 외래 복막투석(CAPD)을 시행하는 환자들의 경우 혈액투석을 시행한 환자에 비해 면역적격성(immunocompetence), 신 이식후 도관 관련 감염 위험성 및 이식신혈관 혈전증 발생율이 높아서 이식신 생존율과 환자 생존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이식전 투석방법이 이식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981년 2월부터 1996년 8월까지 신장이식을 시행했던 환자 중 이식전 CAPD를 시행한 환자 군(A군: 22명)과 이식전 혈액투석을 시행한 환자 중 나이, 성별, 이식전 투석기간 및 조직적합성 정도로 짝짓기한 환자 군(B군: 22명)을 비교하여 이식전 투석방법이 이식신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전체 대상 군의 성별분포는 남자 34명/여자 10명, 평균나이는 $39.6 \pm 13.6(10-62)$ 세이었고 A군의 성별분포는 남자 17명/여자 5명, 평균 나이는 38.7 ± 12.9 세, 평균투석기간은 24.2 ± 17.4 개월이었으며, B군의 성별분포는 남자 17명/여자 5명, 평균나이는 40.5 ± 14.5 세, 평균투석기간은 14.7 ± 16.6 개월이었다.
2. 양 군사이에 원인질환, 혈청 Total protein, Albumin, Total cholesterol, Hemoglobin, BUN, Creatinine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A군과 B군의 1년 이식신 생존율은 각각 81.8% 와 95.2%, 5년 이식신 생존율은 각각 59.9% 와 95.2%로 B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4. A군과 B군의 1년 환자 생존율은 86.4% 와 95.5%, 5년 환자 생존율은 70.2% 와 95.5%로 B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5. A군에서 7예가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는 패혈증 2예 (28.6%), 간 기능부전 2예 (28.6%)였고, 고칼륨혈증, 심혈관계 질환 및 원인 미상이 각각 1예씩 이었다. B군에서는 패혈증으로 1예가 사망하였다.
6. 급성 거부반응의 발생률, 신 이식시 임원기간, 신 이식시 수혈유무, 이식후 요로 감염, 이식신혈관 혈전증 및 이식후 탈장의 발생 빈도는 양 군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식전 CAPD를 시행한 군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군보다 이식신 및 환자 생존율이 낮으므로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4

만성 신부전환자에서 투석요법개시시의 임상상

고려의대 내과

신진호, 이영기, 김상욱, 김수미, 권영주, 표희정

서론 및 방법 투석요법이 소개된 이후 많은 환자들이 투석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임상적 특성, 적응증, 신장 내과로의 의뢰 시기에 따른 치료 성적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바, 본 연구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고대부속 구로병원에서 투석을 받은 2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개시당시의 임상상 및 적응증, 의뢰 시기를 고찰하고 향후 치료 성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연령층에 따른 가장 적절한 의뢰시기, 적응증 및 투석 개시 시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령층은 제1군:15-39세, 제2군:40-59세, 제3군:60세이상, 등 3개군으로 나누었고 의뢰 시기는 초진에서 투석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달이상일 경우를 조기의뢰, 1달미만일 경우를 지연 의뢰로 정의 하였으며, 적응증은 절대 및 상대 적응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270명의 환자의 연령은 최저 15세에서 최고 79세까지로 평균 46.2세였고 성별은 남자가 170명(63%), 여자가 100명(37%)였다. 기저질환은 만성사구체신염이 110예(41%), 당뇨가 59예(22%), 고혈압이 46예(17%) 순으로 많았고 의뢰의 유형은 조기의뢰된 경우가 130예(48.2%) 지연의뢰된 경우가 140예(51.8%)였으며 투석의 적응증은 절대적응증이 173예(64%), 상대적응증이 97예(36%)였다. 각 군의 환자수는 107명, 94명, 69명이었다. 성비를 보면 제1, 2군에서는 64:36, 68:32로 남자가 많았고 제3군에서는 48:52로 남녀가 비슷했다. 원인질환으로는 제1군에서는 만성사구체 신염이 69%로, 제2, 3군에서는 당뇨가 23%와 4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여 연령층에 따라 원인질환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의뢰 시기는 제1군에서 지연의뢰가 조기의뢰에 비해 66:34로 많은데 비해, 제2, 3군에서는 43:57과 43:56.7로 고연령군에서는 조기 의뢰가 유의하게 많음을 보여주었다. ($p = 0.015$). 연령층 및 의뢰 시기에 따른 투석의 절대, 상대 적응증의 차이는 없었다. 투석 개시 시기에 검사실 소견상 BUN, 혈청 크레아티닌 및 인은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p < 0.001$).

결론 고령일수록 원인 질환으로 당뇨병이 많았으며, 조기 의뢰가 많았고, 검사실 소견이 심하지 않아도 절대 적응증에 의해 투석을 시행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연령층에서 좀더 세심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